‘위험천만’ 어린이놀이터

광주 3곳 중 1곳, 360개 시설 ‘보수 시급’

1,092곳 중 470곳은 보험 가입도 안해

23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 인근에 위치한 산수 제1 공원. 지난 1990년 12월에 2천500㎡의 규모로 조성된 공원에 설치된 미끄럼틀 등 6개의 놀이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다. 조성된 지 오래된데다 어린이 놀이 시설 바닥이 흙으로 돼있어 어린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질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였다. 동구는 이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 시설 바닥을 흙 대신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로 개선하기로 했다.

광주시내 어린이놀이터 중 3곳 중 1곳이 설치된 지 15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며, 10곳 중 1곳 정도만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광주시가 지역 내 1천92곳(7천384개)의 놀이터를 전수조사(아동복지시설 제외)한 결과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놀이터가 360곳에 달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맡고 있는 도시공원 내 222곳의 놀이터 중 187곳, 주택단지 내 849곳 중 173곳이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는 설치검사를 완료한 곳은 전체 1천92곳 중 86곳에 불과했으며,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보험에 미가입한 놀이터도 470곳에 달했다.

지난 2008년 초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놀이터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관리하는 주택단지 내 놀이터 849곳 중 보험에 가입된 놀이터는 389곳에 불과했다.

또 대규모 점포나 식품접객업, 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놀이터 20곳 중 절반인 10곳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사고 시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993년 이전에 조성된 광주지역 놀이터는 도시공원 내 99곳, 주택단지 내 275곳 등 모두 374곳이다. 시는 우선 주택단지 내 놀이터 25곳의 설치검사 지원에 1천440만원, 75곳의 시설보수에 12억1천300만 원 등 모두 98곳의 놀이터에 12억2천74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해 지역 내 모든 놀이터를 조사했다”며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우선 시급한 노후놀이시설부터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주여성들의 송편 빚기 추석을 앞둔 23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함지박교실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이 차례상에 놓을 송편을 정성껏 빚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옛 보훈청 건물에 ‘지식재산지원센터’

남구청, 발명·특허 지원

‘지식재산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 남구가 주월동 백운광장 인근의 옛 광주지방보훈청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옛 보훈청 건물은 연면적 3천960㎡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난 2월 광주지방보훈청이 북구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해 현재 비어 있는 상태다.

남구는 보훈청 건물을 재 사용함으로써 메가트로(주월동 화니점), 옛 서진병원 등 장기 방치된 대형 건물의 재사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는 지난달부터 건물주인 기획재정부와 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를 상대로 건물 무상대부 및 매입을 협의중이다.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에는 종합민원실과 체험전시관, 특허청 산하 지역지식재산센터, 특허법률사무소, 기술이전센터, 교육센터 등이 들어서 주민들의 발명과 특허를 지원하게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법 “교수 승진심사 부정 논문 내면 업무방해”

승진 요건을 충분히 갖춘 대학 교수라도 승진 심사 때 부정한 논문을 제출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승진심사와 학회지 등에 남의 논문을 자기 것처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광주 모 전문대 교수 A(47)씨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4~2005년 같은 학교 강사의 논문을 제목만 바꿔 학회지 2개에 자기 것으로 등재하는 한편, 2006년에는 이 실적을 승진심사 때 제출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심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시아-태평양 천문 올림피아드’ 담양서 열린다

10월 7일부터 8일간

9개국 100여명 참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천문 영재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아시아-태평양 천문 올림피아드’ 가 다음 달 담양에서 열린다.

23일 담양군과 아시아·태평양 천문 올림피아드 한국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제5회 아시아-태평양 천문 올림피아드가 다음 달 7일부터 8일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싱가포르 등 9개국에서 100여 명의 청소년 ‘과학 두뇌’들이 참여해 천문과학에 대한 이론시험과 망원경 등을 통한 천체 관측으로 과학 지식을 겨룬다.

또 대전 천문연구원을 방문해 달 착륙 40주년 기념관을 관람하고 우주비행 조정 시뮬레이션과 조선시대 로켓인 신기전 발사 시험 등을 체험한다. 담양 죽녹원과 순천만, 주암호 고인돌 공원 등 전남 관광지를 둘러보고 전통음식도 맛볼 예정이다.

한국조직위 강용희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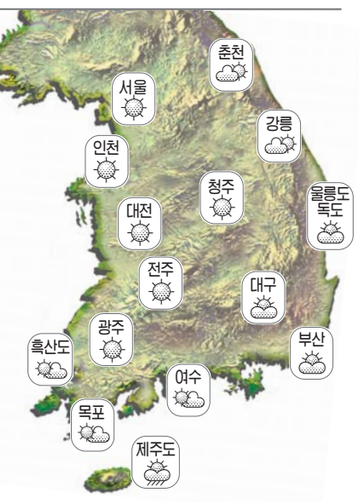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2분 해짐 18시 27분 달뜸 12시 01분 달짐 21시 42분

가을밤 추억 만들어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광 주	구름조금	18/29℃
목 포	맑은뒤 흐림	18/27℃
여 수	맑은뒤 흐림	20/26℃
완 도	맑은뒤 흐림	18/29℃
구 례	맑은뒤 흐림	16/29℃
해 남	맑은뒤 흐림	16/29℃
장 흥	맑은뒤 흐림	16/29℃
고 흥	맑은뒤 흐림	16/28℃
순 천	맑은뒤 흐림	17/29℃
영 광	구름조금	16/28℃
진 도	맑은뒤 흐림	17/29℃
전 주	구름조금	17/29℃
남 원	맑은뒤 흐림	15/29℃
흑산도	맑은뒤 흐림	19/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밀물	썰물
목포	05:10 18:03	10:18 23:02
여수	12:16 23:46	05:24 18:1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날 씨						
최저/최고	19/28	18/28	19/25	18/25	17/26	17/26

나주·목포 ‘찾아가는 상담’

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이정강)는 24일부터 이틀간 나주와 목포에서 ‘찾아가는 인권상담서비스’ 행사를 갖는다.

광주사무소는 24일 나주병원 앞 사거리에 상담 부스를 설치해 상담활동에 나서며, 25일에는 목포터미널 인근 공원에서 인권차별 및 침해행위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상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이뤄지며, 현장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시·군 단위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인권 관련 상담을 받을 기회가 적다”며 “앞으로도 ‘인권 사각지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